

‘또 물바다 된 광주’... 시간당 86mm 폭우에 복구 등 곳곳 침수

빗물저장시설 아직... 문흥동성당·신안교 침수 반복 ‘아찔’

‘시간당 86mm’ 폭우가 쏟아진 광주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5년 전 집중호우 당시 겪었던 침수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7일 광주 복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복구청사거리, 전대정문, 전대농대쪽문, 문흥동성당, 죽림지하차도, 신안교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복구는 이 용 차량을 대상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날 침수된 곳 중 문흥동성당의 경우 지난 2020년 폭우 당시에도 피해를 입은 곳으로, 복구의 빗물저장시설 사업 예정지이기도 하다.

앞서 2020년 8월 광주지역에는 48시간 기준 516mm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폭우로 광주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문흥동성당 주변과 신안동·용봉동 등 복구 소재 도심이 큰 피해를 입었다. 문흥동성당은 일대 주택가가 잠기고 신안동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차 차량 수십 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신안교 하천일대는 범람해 서암대로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고 주변이 온통 잠겼다. 전남대 사거리에서도 우수관로가 막히면서 일대가 하천을 범람케 할 정도로 물이 불었다.

원인은 저지대와 함께 우수관로 용량 부족이 꼽혔다.

이에 복구는 이듬해부터 침수 피해가 난 곳을 중심으로 빗물저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문흥동성당을 시작으로 복구청사거리, 신안교 일원까지 사업을 총 3단계로 구상하고 총 사업비 708억원을 확보했다.

설계 등을 모두 마친 복구는 지난 3월 문흥동성당 일원 빗물저장시설 설치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시설은 빗물 2만7000㎡ 규모를 저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구는 오는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문흥동성당 빗물저장시설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구는 이후 단계적으로 동강대와 전남대 주변에도 빗물저장시설을 설치, 오는 2029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서방천 하수도 중점 정비, 운암동 공구의 거리 하수도 중점 정비, 첨단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도 나선다.

복구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문흥동성당 빗물저장시설 현장 부지 사용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협의 이후 조속히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남구 진월동, 광산구 도천동 등지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잇따라 소방 당국에 의해 3명이 구조됐다. /오권철 기자



17일 오후 광주 복구 문흥동성당 주변 빌라촌이 물에 잠겨있다.



광주지역에 시간당 86mm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광주 복구청 앞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폭우로 넘치는 빗물에 갇혀 오가지 못하고 있다.

기록적 폭우, 삼시간 침수, 차량 고립에 긴박 탈출구조...

거센 물결 일렁이는 하천이 된 광주 복구청 일대

“이제 웬 물벼락” 광주지역에 시간당 86mm 폭우가 쏟아진 17일 점심 무렵 광주 용봉동 복구청 사거리.

전남대 정문 방향으로 난 왕복 4차선 도로가 순식간에 흙탕물이 만든 파도에 집어삼켜졌다.

도로는 완만한 경사가 만들어져 있는 탓에 물이 고이기 쉬운 구간. 평소 배수가 원활한 곳이지만 기록적인 폭우 탓에 도심 속 거센 물결이 일렁이는 하천이 만들어졌다.

거센 물결 속 삼시간에 불어난 물이 어느새 사람 무릎 높이까지 고이면서 지나던 승용차 4대가 고립됐다.

머지않아 번호관과 전조등을 가릴 정도로 수위가 높아지자 한 승용차에서 운전석 창문이 열렸다.

열린 창문을 통해서 차량 운전자가 상체를 길게 내뻗 뒤 허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변을 살폈다. 이윽고 양 팔을 뻗어 차체 지붕으

로 올린 뒤 위태로운 자세를 취하면서 탈출을 감행했다.

차체를 짚은 손이 미끄러운 듯 불안한 시도가 이어지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걱정 섞인 탄식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 운전자는 머지않아 도착한 소방 당국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복구청 사거리 일대는 이날 쏟아진 폭우로 점심 무렵 한 시간여 동안 침수가 이어졌다.

합계 고립된 차량들도 뒤따라 이어진 주변 배수 작업 끝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광주 소방 당국에 집계된 집중호우 관련 피해 신고는 136건이다. 당국은 침수 차량 2건을 신고 접수받아 3명을 구조했다. 또 도로침수 87건, 도로장애 3건, 낙하위험(지붕) 1건, 건물침수 38건, 기타 5건 등을 접수받아 조치했다. /송현근 기자

200mm 폭우에 항공기 결항·지하차도 통제... 광주·전남 ‘초비상’

19일까지 최고 300mm 예보... 통제 지속 될 듯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국립공원 통행이 통제되고 열차·항공기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 곳곳에 시간당 30mm, 최고 86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오후 2시 40분 기준 강수량은 광주 서

구 풍암 199.5mm를 최고로 광주 북구 과기원 196.5mm, 담양 봉산 194.5mm, 나주 167.5mm, 화순 백이면 136mm, 곡성 111.5mm를 기록 중이다. 비는 오는 19일까지 3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짧은 시간 집중·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 진입로 등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광주 서구 광신대교다목적광장 등 둔치주차장 11개소와 광주천·영산강·서창천·

서방천·황룡강·풍영정천 진·출입로 336개소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또 광신대교 하부 도로 등 하상도로 7개소와 하천 다목적 광장 3개소, 서구 농성지하차도 등도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무등산·지리산·월출산국립공원 탐방도 제한되고 있으며 항공기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오후 1시 35분부터 여수공항에서 제주로 출발예정인 대한항공을 비롯해 아시아나·진에어 등이 모두 결항됐다. 오후 4시 20분에 여수공항에 도착예정인 진에어(제

주)와 오후 5시 40분 아시아나항공(서울)도 기상 악화로 인해 결항됐다.

광주공항도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출발 예정인 비행기가 모두 결항했으며 오후 6시 이후 제주행 비행기는 탑승 수속이 중단됐다.

용산에서 출발해 광주와 목포를 오는 열차 3대와 광주에서 용산을 가는 열차 2대 등 5대가 운행이 멈췄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열차도 상당수 지연되고 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비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천·계곡 등 야영객은 철수하고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피해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고, 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업무방해·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60대 여

“만나달라”며 7번 집 찾아간 광주 50대

접근금지 명령에도 또 스토킹... 북부경찰, 구속영장 신청

성 B씨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한 식당을 찾아 만취 상태로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만나달라’며 B씨의 집을 7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을 드나들며 B씨를 알게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적된 신고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끝에 지난 15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모집... 30개 직종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 인력풀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직종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실무사 등 30개다.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내(조리사·조리원·미화원의 경우 만 65세)이며 직종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 직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인력풀에 등재되면

앞으로 1년 간 학교나 기관에 교육공무직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다. 신청은 21일부터 8월1일까지 전자우편(jirre@korea.kr)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대체 인력풀 등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학교와 기관이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